



▣ 현장 감독 백선교사



▣ 성경학교 주강사, 캄보디아 목사님



▣ 건축 중인 현장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하며 노원성진교회 최지훈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저희 소식 전해드립니다.

【반석교회 교육관 건축-구름기둥의 은혜】

우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관 건축을 강행했습니다. 내년 초에 반석교회에서 숙박하면서 사역할 단기선교팀에 맞추다 보니 지난 9월 첫째 주에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일하는 낮에는 구름 낀 하늘 덕분에 인부들이 지치지 않고 쭉~옥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소나는 일을 마친 후에 내려주어서 비로 인해 일이 중단된 적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하리만치 다른 지역, 심지어 이웃 동네에 비해서도 강수량이 적어서 놀라기까지 합니다. 수년 전, 반석교회당 건축 때 마음이 많이 상했던 기억이 있어서 건축은 더이상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달았었는데, 주의 일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미워도 다시한번이라는 심정으로 결단을 하니 하늘도 도와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기라서 걱정했던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되고 오히려 구름 낀 하늘 아래에서 일을 하다보니 공사기간이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바로 그 구름기둥을 연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하고 계신 동역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체 성경학교- 자신감이 생겨서 감사한 일】

매년 한국 교회에서 단기선교를 와 주시는 것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는 인력과 재정 부족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자체행사를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현실을 넘어 자체행사를 한번 해 보기로 하고 두 전도사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미루면 끝도 없고 결단하면 일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건축현장 감독을 하는 중에 교회 행사까지 진행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지만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부부가 목표를 둔 점은, 첫째 우리 전도사들이 이끌어 가는 성경학교였습니다. 그동안 한국 손님들이 오면 그분들이 주축이 되고 우리 전도사들은 도우미 정도로 참여했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전도사들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둘째, 우리교회 아이들에게 캄보디아인 목사님의 설교를 시리즈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선교사의 설교만 들어온 아이들이 캄보디아 목사님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말씀이 더 선명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비록 아이들이지만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고 싶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모든 목표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저희 부부는 멀티플레이어 선교사였습니다. 건축현장을 돌아보라 성경학교 핑크 나지 않게 꼼꼼하게 챙기랴 동분서주 했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구름 위에 있는 듯했습니다.

【그 다음이 보이는 건 행복한 일이다-백선교사 페이스북 내용 중】

매일 건축현장을 돌아보면 여전히 덜된 것, 거칠은 부분들만 보이지만 저 공정을 지나서 미장을 하고 마감을 하고나면 좋은 건물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보인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을 살면서 나 자신에게서 무슨 소망을 보겠느냐만 그 다음을 이루어 가실 그분을 바라보니 이 또한 행복이라 아니 말할 수 없노라.

▣ 기도제목

1. 반석교회 교육관 건축이 마무리까지 잘 진행이 되도록.
2. 태국-캄보디아 전쟁으로 태국에서 들여오는 모든 물류가 수입중단 조치가 내려지는 바람에 건축자재비도 올랐는데, 재정에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3. 교육관이 완공되고 ‘기숙형제자반’이 시작될 수 있도록.
4. 성경학교를 통해 자신감을 얻은 두 전도사가 앞으로 계속 수고하며 자립까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5. 은혜를 아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교회의 기둥으로 든든히 자라갈 수 있도록.

2025년 10월 16일

하나은행 022-04-00057-011

합신세계선교회 백정운